

홍건희 “이젠 ‘확실한 선발’ 할 때 됐다”

오늘 KT전 출격...2승 도전
KIA 마운드 영건들의 중심
시즌 5경기 26.2이닝 소화
독기 품고 제구력 개선 노력
“믿음직한 이미지 심어주고 싶어”



KIA 타이거즈 홍건희가 ‘확실한 선발’을 목표로 6번째 출격을 한다. 홍건희는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경기에서 선발

로 등판한다.

지난 4월 14일 문학 SK전에서 선발로 시즌 첫 등판했던 홍건희는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는 3패만 기록하고 있다. 출발이 좋았던 만큼 아쉬운 결과지만 5경기에 나와 26.2이닝을 소화하면서 위기의 선발진에 힘을 더해줬다.

두 외국인 투수의 부족한 성적 속 고된 많은 5선발까지 생각하면 홍건희는 ‘젊은 마운드’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키다.

올 시즌 선발 후보에 홍건희의 이름은 없었다. 지난 2년의 부진도 그의 올 시즌에 물음표를 남겼지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시즌을 준비한 홍건희는 한승혁, 임기영의 부상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홍건희는 “캠프에서 중간 쪽으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선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피칭 개수도 많이 하고 코치님들에게 욕심도 보였다.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개막 엔트리에는 못 들었는데 선발 준비하면서 노력한 게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 “준비를 잘해서 마운드에 올랐을 때 자신감이 다르다. 아직 길게 던져본 적이 많지 않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선발로 꾸준히 나가니까 여유가 생기고, 많이 배운다”며 “최대한 마운드 올라가면 즐기려고 한다. 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위축되거나 처진 분위기로 뛰면 시합이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즐기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시즌을 잘 준비한 KIA의 대표적인 ‘모범생’ 홍건희. 달라진 팀 내 경쟁도 홍건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홍건희는 “준비를 잘했고, 독기도 폼였다. 2년 동안 말도 안 되게 부진했다. 감독님께서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주축 선수는 아니지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함이 컸다. 독하게 마음 먹었다”며 “투수층이 확연히 젊어졌다. 지금 선발이지만 한 자리 꿰찼다고 생각 안 한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도 많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나가 집중해서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후배” 들은 긴장감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선배’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힘이다. 특히 양



현종은 홍건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존경하는 선배이다.

홍건희는 “몸 관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영리하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양)현종이 형은 몇 년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양현종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다. 형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몸 관리하는 법, 체력 관리하는 걸 배운다”고 설명했다.

초반 부진으로 우려의 시선이 가득한 2019시즌이지만, 홍건희가 보는 KIA 마운드는 희망적이다.

홍건희는 “투수들이 젊어졌다. 실력, 경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패기 넘치고 하려는 의지도 매우 강하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근래 몇 년 사이에 투수들 분위기가 최고다. 하려는 의지가 넘쳐 옆에 사람들도 같이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며 “예전에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때

가 되니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다. 여기서 내가 처지면 밀리겠다 그런 위험도 느낀다.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보면 자리를 뺏길 수 있는 만큼 안 지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건희의 올 시즌 목표는 ‘선발’이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홍건희는 “내 이름이 나오면 확실한 선발투수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 한 팀에서 선발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선수로 인식되고 싶다”며 “변화구 구위와 제구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체인지업을 준비했고 커브도 던지면서 타자 상대할 때 여러 루트가 생긴 것 같다. 지금도 젊으니까 일단 힘 있는 직구로 승부하는 데, 변화구를 추가하고 마운드 운영하는 여유도 생기면서 자신감이 많이 충전됐다. 팀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선발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스승의 날’ 코치진 찾은 선수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어서 = KT와의 홈경기가 열린 15일.

KIA 선수들은 이날 훈련 시간 전에 미팅을 진행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수들은 한데 모여 김기태 감독과 코치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은 김 감독은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며 최근 성적에 대한 사령탑으로서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수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한다”며 “오늘 경기가 끝난 뒤 어떤 표정일지 모르지만 경기 전에는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준비를 하자”고 언급했다. 선수들은 큰 박수로 미팅을 마무리하며 밝은 표정으로 새로

운 하루를 시작했다.

▲잘 이끌겠습니다 = 2루수 안치홍이 KIA의 ‘임시 주장’ 역할을 맡았다. KIA는 15일 훈련 시간 전에 가진 미팅을 통해 안치홍에게 주장 역할을 맡았다. 주장인 김주찬이 부상으로 재활군으로 가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인 안치홍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안치홍에게는 처음 주어진 역할. 안치홍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됐다. (주찬이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선수단을 잘 이끌어 가 보겠다”며 “팀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많은 팬이 응원 보내주고 계신다. 그라

운드 안팎에서 좋은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역할 잘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좋은 점은 없었어요 = 욕심 많은 투수 강이준의 프로 데뷔전 자평은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고졸 3년 차 강이준은 지난 7일 정식 배번을 받고 처음 1군에 등륙해 두산을 상대로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선발로 출격한 강이준은 첫 등판답지 않게 썩직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섰다.

안타와 볼넷으로 1·2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하지 않았고, 3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까다로운 두산 타자들을 요리했다. 하지만 4회 연속 안타

와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면서 일찍 등판을 마무리했다.

강이준은 김기훈이 제구 난조로 다시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말 한화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선발 기회를 얻게 됐다. “첫 등판에서 좋은 점은 없었나요?”는 질문을 받은 강이준은 “그때 공이 안 좋아서 그렇게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많이 아쉬웠다. 아쉬운 것만 생각한다. 팀이 이겨야 좋은 게 생각이 나는데”라며 “다음 등판에서는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1위 ‘의욕’

우즈, 오늘부터 PGA 챔피언십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의 베스페이저 스테이트 파크 블랙 코스(파70·7천459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우승자에게 무게 12kg이 넘는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이 대회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 역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의 성적에 쏠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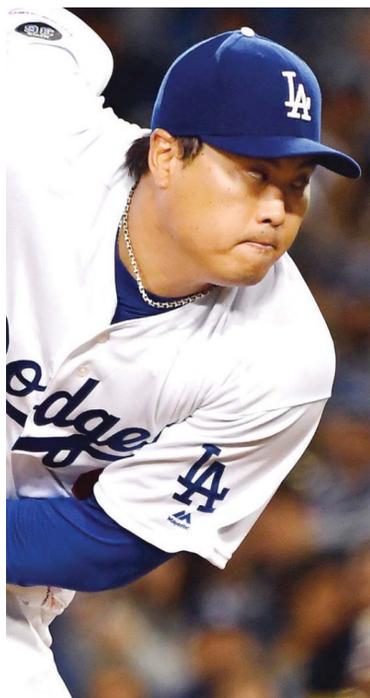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를 15회로 늘린 우즈가 이번 대회까지 우승할 경우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보유한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 18회와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다.

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1승을 거둔 우즈는 1승만 더하면 샘 스니드(미국)가 보유한 최다 우승 기록(82승)과 갈아친다.

우즈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세계 1위 자리에 복귀할 수도 있다.

우즈가 우승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1위 존슨이 10위 밖으로 밀리고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캅카가 준우승하지 않으면 우즈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다.

/연합뉴스



20일 등판 ‘유력’

류현진, 신시내티즌 출격

사이영상 수상 후보로 위상이 상승한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충분히 쉬고 20일 신시내티 레츠와의 방문 경기에 등판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주말 신시내티와의 선발 순서를 공개했다.

16일엔 일본인 투수 마에타 겐타가 마운드에 오르고, 하루 쉬 뒤 18일부터 열리는 신시내티와의 3연전 첫 두 경기엔 리치 힐, 워커 볼러 순으로 등판한다. 신시내티와의 3연전 마지막 날 선발 투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 순서상 지난 13일 시즌 5승째를 따낸 류현진이 나설 차례지만, 로버츠 감독은 말을 아꼈다.

다저스는 25~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6월 6일까지 13연전을 치른다.

지난 13일 빅리그 진출 후 가장 많은 공 116개를 던지고 시즌 5승째를 따낸 류현진은 6일간 어깨 피로를 완전히 털어낸 뒤 다시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쿠바 출신 야시엘 푸이그(신시내티)와의 대결은 야구팬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경기 시간은 20일 오전 2시 10분이다.

/연합뉴스

‘승승장구’ 정윤성

광주오픈챌린저테니스 16강 진출

정윤성(25위·CJ제일제당 후원)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대회(총상금 5만4160달러) 16강에 올랐다.

정윤성은 15일 광주 진월코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이덕희(241위·서울시청)를 2-0(6-4 6-2)으로 물리쳤다.

1998년생으로 나이가 같은 한국 남자 테니스 기대주들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따낸 정윤성은 3회전에서 예브게니 돈스코이(150위·러시아)와 8강 진출을 다룬다.

이번 대회 4번 시드를 받은 돈스코이는 2013년 세계 랭킹 65위에 올랐던 선수다.

이번 대회 단식 16강에 한국 선수로는 정윤성과 권순우(147위·당진시청) 두 명이 진출했다.

권순우는 스키타 유이치(187위·일본)와 3회전을 치른다. 권순우와 정윤성이 계속 이겨 나가면 4강에서 만나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